



“바른 역사 인식 없으면 불교의 내일도 없어요”



저자 인터뷰 '고구려 시대의 불교 수용사 연구' 낸 진관 스님

'타이틀' 많은 스님의 검은 승복과 목탁
올해로 비구계를 받은 지 40년이 되는 진관 스님은 '타이틀'이 많다. 일찍이(1976년) 시인으로 등단했고 불교인권위원회를 설립해(1990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2000년에는 불교평화연대 대표로 평양을 방문했으며 한총련 시위 현장에서 연행돼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검은색 승복을 입고 목탁을 딱, 딱, 치면서 다니는 스님은 종단의 행사장이나 각종 시위현장에 늘 등장한다. 불교가 추구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멀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 때문이다.

진관 스님이 시를 쓰고 인권운동에 앞장서는 것은 누구나 자주 보는 장면이다. 그러나 동국대 불교대학,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거쳐 광주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조선대학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동국대학고 행정대학원에서 통일정책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사실은 좀 의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관 스님은 중앙승가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쓰는데 이마 마무리 단계다.

'역사 인식' 회두로 학문의 길 순례

진관 스님이 박사학위 논문에 앞서 낸 논문이 650페이지 분량의 <고구려 시대의 불교수용사 연구>다. 943개의 각주가 달린 이 논문집은 고대불교사 정립에 대한 진관 스님의 관심을 집약해 중요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일정부분의 결론을 도출해낸 의미 있는 작업이다.

조계사 인근에서 '거리의 투사' '흑기사' 등으로 불리는 진관 스님은 거리에 서서, 군중들 속에서 뭔가를 합차게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학문의 도량에 앉아 있기도 한다. 스님의 학문적 관심은 매우 범위가 크다. 응축된 화두는 '역사인식'이라 할 수 있지만, 현대와 개화기 이후,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삼국시대와 고대의 한반도에 불교가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조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불교의 역사를 처음부터 새롭게 조명하겠다는 진관 스님의 학문적 순례길이 평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승려로서 못 갈 길이 어디 있느냐"는 스님의 도전정신은 새로운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한국불교의 근현대사를 깊이 들여다 본 스님은 박사학위 논문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로 정했다. 개화기 이후 한국의 근현대 불교사야말로 오늘의 불교를 바라보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에 먼저 눈길을 준 것은 무슨 이유일까?

"지금 그 쪽이 시급하잖아요. 중국의 동북공정은 아주 치밀하게 파고드는데 우리의 방어는 허술하니까요. 역사적으로 규명할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대응할 길도 찾지 못했어. 나는 역사학

자가 아니라 이런 연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디다. 그렇지만, 불교계에서 고대불교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한 불교의 역사는 출발부터 비뚤어진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고구려의 영토 정신 재인식할 때

현실참여를 이념 이전의 사명으로서 여기는 진관 스님의 '깊은 뜻'은 고구려의 드넓은 영토와 높은 기상을 우리의 역사로 회복하자는 데 있다.

"우리에게 고대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전부인데 이들 자료 역시 매우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사'의 경우 지나치게 설화적인 부분에서 역사적 사실을 봐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사기'는 지나치게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기술된 자료라 한계가 있어요. 한반도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시기를 고구려 소수왕대인 서기 372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역시 '사기'의 기록에 의한 겁니다. 가락국의 불교유입을 허황후의 도래로 본다면 그보다 훨씬 앞 선 시기에 불교가 들어 온 것이 됩니다. 또 고구려의 건국사를 단순히 신화의 차원에서 간략히 정리해 버린 점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구려 건국사는 중국대륙의 드넓은 영토를 토양으로 하고 있고 전해지는 것보다 훨씬 웅장한 정신을 품고 있다는 것을 재검토하고 우리의 역사로 인식하자는 겁니다. 거기에서 불교는 어떤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요."

이 대목과 관련 진관 스님은 논문의 결말에서 핵심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고구려가 불교를 수용함에 있어서 전진이라는 나라와의 교류를 할 수 있고 전진의 불교뿐만 아니라 고구려 국가의 율령까지도 전해 받아 고구려 국가의 기틀을 세우고 고구려의 불교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였다고 본다. 고구려가 불교를 수용한 이후에 국가로서의 체제 발전과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하였다.'

진관 스님은 고구려의 건국사에 불교가 힘을 보태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고구려의 멸망에 대해서도 불교의 약화가 원인이었다고 진단한다.

"고구려는 도교를 받아들여서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수나라와의 전쟁으로 국력이 소진되기도 했지만 수나라는 고구려에 의해 망했고 고구려는 강대한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의 도교를 수용한 영류왕 보장왕 연개소문 등에 의해서 고구려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강대한 나라로 발돋움 하는 데 불교가 힘을 부여했던 것과 매우 대조적인 겁니다."

원효 스님의 '화쟁' 과 전쟁동참 비판



고구려의 넓은 영토와 정신 우리 불교사로 복원해야 종교편향 역사적 뿌리 깊어 ... 불교사 연구자 많아야

진관 스님은 논문에서 고구려의 멸망과 관련된 불교세의 약화와 상대적으로 도교를 받아들인 집권층의 태도 등을 '승군(僧軍)'의 활동상까지 연계해 조목조목 짚어내고 있다. 특히 논문을 통해 고구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교적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관 스님은 남북의 분단 상황이 고구려 연구가 진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남북의 역사학자와 불교학자가 상호교류를 통해 역사상을 바르게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관 스님은 이 논문에서 원효 스님도 비판하고

있다. '화쟁사상'으로 집약되는 원효 스님의 정신과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전쟁에 참가한 원효 스님의 행적이 보여주는 이중성을 공격한 것이다.

"원효는 당나라 군사들이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해 평양성에 도착했을 때 군량미가 부족하다는 당나라의 요청을 신라에서 받고 김유신과 함께 고구려 지역으로 군량미를 전달하는데 동참했습니다. 이는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화 될 수 있겠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종교편향은 미군정 때부터 시작됐다

진관 스님이 불교역사에 천착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역사를 모르면 오늘을 모르고 오늘을 모르면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스님은 오늘날 종교편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도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통해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의 종교편향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개화기 이전으로 문제의 뿌리가 드리워져 있거든요. 일제 강점기는 차치하고 미군정기부터 살펴봐도 종교편향 궤불의 뿌리가 우리 현대사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후 이승만 정권 때의 '정화 유시' 또한 명분은 일제 불교의 청산이라고 했지만, 어느 측면에서 불교 탄압의 의도가 보이거든요. 그 이후로도 10.27법난과 현재까지 이어진 정권의 종교편향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역사인식을 철저히 가져야 할 이유도 알게 됩니다."

불교사 연구하는 스님 100명은 돼야

진관 스님은 불교역사학자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학 전공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받아들여야 할 난처한 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불교의 관점에서 한국불교사를 넓고 깊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거철에 선원에 방부 들어는 조계종 선객이 2200명이라는 적어도 100명의 스님은 불교사를 연구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그리고 종합대학에 불교역사학 전공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백재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고구려 시대의 불교 수용사 연구
진관 스님 지음 | 경서원 펴냄 | 32만5000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 전통
프랑스의 일과 온이 담긴
우리 민속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자용·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1985-1135 / 0541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s.co.kr

화제 집중
관세음보살 손금
(22K) 목걸이 메달

대자대비의 발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장등록 출원 중)

자비구세 정신의 핵심으로, 천 가지 지혜 눈으로 중생계를 살피고 천 가지 구원의 손길을 펴서 고택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구하시려는 넓고 깊은 원력을 지니신 대자대비의 유일한 진신 관세음보살님... 그 위신력과 가호를 항상 간직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업성취, 신수대길, 재수대통, 복덕구복, 만사형통, 승진, 합격, 안전, 성취발전, 심재팔난 관재구설 병고역난 일시소멸

확대[앞] 확대[뒤]

※ 메달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재질 : 손금 22K, 케이스 : 케노텍(항공기 유리소재) / 크기 : 가로 2cm x 세로 3cm

사찰 불사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스님들께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10-7208-3777, 010-2869-5777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산100번지 각원사 해일 합장
농협 231080-52-220201 이규상

조계종 77조
전강 대선사님 법어집

이 책은 지혜 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법거량과 법문, 일화를 인가 제자인 대원 선사님께서 재조명하여 보인 것입니다.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인 전강 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쳐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대원 선사님과의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량같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법거량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삼광과 같은 지혜로 수놓은, 최상승법의 자취없는 문양과 향 없는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다>는 선(禪) 수행자들에게 10년 가문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달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전등록 전5권 / ● 무문관 / ● 벽암록 / ● 천부경 / ● 금강경
 ● 신심명 / ● 중도가 / ● 반야심경 / ●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 환단고기 전5권 / ● 범용선사 심명 / ● 선가귀감 / ● 법성계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찻논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복체로세상을복심아 / 달다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78대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02-3494-0122 www.zenparadise.com